

심층분석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2026.04.19

[1장] 증권업 및 디지털금융 IT 산업 분석

1.1 산업 정의와 시장 구조

국내 증권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자문·일임·신탁·집합투자** 6개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으로 정의됩니다. 자본시장법은 과거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통합해 2009년 2월 시행된 법률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정의, 업무단위별 인가, 투자자 보호 장치(적합성·설명 의무·부당권유 금지) 등을 중심축으로 합니다. 사업부문은 통상 **브로커리지(위탁매매)·IB(인수·주선·M&A·PF)·WM(자산관리)·트레이딩(S&T·PI)·기타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각 부문은 수익 변동성과 자본 소요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권사"라는 간판 아래서도 회사별로 체질이 판이합니다. 예컨대 브로커리지는 수수료 수익 중심의 회전율 사업이고, IB·PF는 자기자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자본집약 사업이며, WM은 고객 Lock-in 기반의 장기 플로우 사업입니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3조 원 이상)·초대형 IB(4조 원 이상, 발행어음)·IMA(8조 원 이상, 종합투자계좌)의 3단계로 차별 인가되는 구조이며, 이 계층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기회를 가르는 현실적 장벽입니다. 종투사 인가를 받으면 전담중개업무와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해지고, 초대형 IB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며, IMA 인가 시 종합투자계좌에 예탁된 자금을 발행어음 규제 없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 IMA 인가를, 키움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추가 확보했고, 대신증권도 2024년 12월 10호 종투사 지정에 이어 2025년 말 자기자본 4조 원을 넘기며 초대형 IB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라이선스 계층은 곧 **중형사(한화투자증권 포함)와 대형사 간 비즈니스 격차를 제도화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자본 2조 원대에 머무른 한화투자증권은 구조적으로 발행어음·IMA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제약이 곧 본 리포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디지털·글로벌·시너지" 비자본 레버리지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024년 국내 60개 증권사 합산 당기순이익은 6조 9,870억 원(+23.0%), 수수료수익 12조 9,457억 원(+10.4%)이었고,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이 9조 6,455억 원(+38.9%)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수료수익 16조 6,159억 원(+28.3%) 중 수탁수수료 8조 6,021억 원, IB수수료 4조 864억 원, 자산관리수수료 1조 6,333억 원으로 브로커리지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기자본은 91.8조 원, 자산총액 755.3조 원 규모입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국내 증권업이 이미 성숙 산업에 해당하지만, 해외주식·디지털 자산·퇴직연금·STO 등 신규 카테고리를 통해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한 혼합형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2021년 순영업수익=100 기준 2025년 대형사는 111, 중소형사는 76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중형사에게는 기존 게임(브로커리지·전통 IB)이 아닌 신규 게임(STO·RWA·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승부가 불가피합니다. 이 양극화는 자본력이 곧 상품력으로 직결되는 발행어음·PF 등에서 특히 뚜렷하며, 중형사가 대형사의 규모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영역은 "규제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 "고객 접점의 UX 혁신", "틈새 자산군 선점"으로 수렴합니다.

1.2 디지털 전환 6대 축: MTS·RA·STO·마이데이터·ATS·AI/클라우드

첫째, MTS 전장화입니다. 2025년 7월 모바일인덱스 기준 키움 영웅문S# MAU 277만, 미래에셋 M-STOCK 249만, 삼성 mPOP 240만, KB M-able 234만으로 상위권이 고착되는 가운데,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월 거래대금 30조 원대로 2024년 11월 키움을 역전**했고, 메리츠증권은 2024년 11월 '0% 수수료' 정책으로 MAU가 1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년 새 3배 증가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반복적 장애에 대한 금감원 지적 이후 **2025~2027년 3년간 IT 투자 1,250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MTS 전장의 핵심 경쟁 요소는 단순히 주문·체결 속도가 아니라 "처음 앱을 켜 사람이 첫 거래를 완료하기까지의 총 마찰 시간", "장애 없이 피크 트래픽을 감내하는 인프라", "콘텐츠·리서치·커뮤니티의 체류 유도 장치" 3가지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세 축 모두에서 디지털금융-IT 부문의 기여가 결정적입니다. 중형사가 이 전장에서 생존하려면 **UX·콘텐츠·외부 플랫폼 제휴**라는 차별화가 필수이며, 한화투자증권이 토스 앱에 한화투자증권 계좌·상품을 노출하는 "플랫폼-in-플랫폼" 전략을 채택한 것은 자체 MAU 열위를 외부 플랫폼의 트래픽으로 보완하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둘째, 로보어드바이저(RA) 제도권화입니다. 코스콤 테스트베드에 42개사·327개 알고리즘이 등록돼 있고, 2024년 말 RA 계약자 37만 4,853명·가입금액 1조 1,742억 원, 평균 수익률 14.89%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2월 금융위는 **17개 투자일임업자의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약 400조 원 퇴직연금 시장이 RA에 개방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이 변화가 증권사 IT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알고리즘·백테스트·모델 거버넌스 체계의 표준화 요구, 둘째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증권)와의 실시간 계좌 연동을 위한 API 인프라 강화 요구, 셋째는 RA 수익률·리밸런싱 이력의 투명 공개를 위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요구입니다. 한화투자증권처럼 자산운용·RA 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중형사에게 RA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IT 내부의 데이터 플랫폼·모델 운영(MLOps) 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셋째, 토큰증권(STO)의 2026년 제도화입니다. 2023년 2월 금융위 가이드라인 이후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025년 정기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2026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하나-SKT의 NFI 메인넷, 신한-SK증권-블록체인글로벌의 PULSE 컨소시엄, KB·한국·NH의 자체 컨소시엄이 경합 중이며, 한화투자증권은 미국 Securitize PIPE 투자·두나무 지분 5.94%를 자산으로 "Global No.1 RWA Hub" 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STO가 제도화되면 부동산·미술품·저작권·탄소배출권 등 기존에 유통화가 어렵던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쪼개어 상장·유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분산원장 기반의 발행·유통·권리기록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권사 IT에 완전히 새로운 스택을 도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퍼블릭 또는 컨소시엄 체인 운영, 스마트 계약 보안 검증, 계좌관리기관 인터페이스, 투자자 KYC·AML 연동, 토큰 보관(Custody) 인프라 등이 필요하며, 이 모든 영역이 "전통 증권 IT + 블록체인 공학 + 금융 규제 해석"이라는 세 축의 교차점에 놓입니다.

넷째, 마이데이터 2.0이 2025년 6월 19일 시행돼 27개 사업자 참여·일괄연결·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되면서 증권사 자산관리 서비스의 데이터 기반이 넓어졌습니다. 키움증권 마이데이터는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마이데이터 2.0의 실무적 함의는 과거 은행·카드 중심이던 정보 제공 범위가 증권·보험·통신·공공·유통까지 확장되어 개인의 전 자산·지출 프로필을 한 번에 조회·분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며, 이는 증권사 IT에 **개인 통합 자산 뷰어, AI 기반 지출·투자 패턴 분석, 리타게팅 캠페인 자동화** 같은 상위 레이어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수집·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의 감독 강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내부 IT의 로그·접근통제·가명처리 기준이 과거 대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다섯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2025년 3월 4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34개사 공동출자·거래참여 15개사로 시작한 NXT는 프리마켓(08:00~08:50)·정규(09:00~15:30)·애프터마켓(15:30~20:00) **12시간 거래체제**를 도입해 2025년 6월 일평균 거래대금 10.7조 원(KRX 대비 47.8%)까지 성장했다가, 자본시장법상 6개월 평균 점유율 15% 상한 규제로 2025년 11월 20종목 거래 임시중단 등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NXT는 증권사 IT에 **SOR(Smart Order Router)·최선집행 의무·거래시간 확장에 따른 24시간급 운영 부담**이라는 새로운 기술 요구를 부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종목에 대해 KRX와 NXT의 호가·체결 가능성을 실시간 비교해 최적 시장을 선택하는 라우팅 엔진, 투자자 고지·약관·위험고지서의 전자 서비스, 12시간 확장 거래에 따른 야간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원장 정산·감독 보고 주기의 재설계, 인프라 이중화의 고가용성 기준 상향 등이 포함되며, 이는 곧 증권사 운영 팀·개발팀 모두에게 새로운 KPI와 업무 루틴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AI/클라우드 전환입니다. AWS-IDC 2025 조사에서 국내 금융사 92%, 증권사 97%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네이버클라우드와 HyperCLOVA X-DASH 기반 금융특화 sLLM을 온프레미스로 구축해** 국내 금융권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금융위는 2024년 8월 13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해 생성형 AI 활용 허용·연구개발망 물리적 분리 완화·SaaS 확대·MLS(Multi-Layered Security) 체계 전환을 3단계로 제시했으며, 2025년 1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SaaS 망분리 예외**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 허용됐습니다. 이 변화의 실무적 함의는 "지난 십수 년간 한국 금융권 IT 혁신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기술적 장벽이 제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 증권사 IT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LLM 기반 고객 상담, 생성형 리서치 보조, 실시간 AI 리스크 모니터링,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리브랜딩형 MTS 같은 일들을 현실적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동시에 AI 모델의 편향·환각, 개인정보 유출, 제3자 SaaS 의존도 급증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운영 위험**이 부상하고 있어, IT 부문의 거버넌스·보안 역량이 기술 도입 속도만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1.3 증권업 가치사슬과 IT의 위상

증권업 가치사슬은 상품개발(퀀트·AI 모델) → 마케팅·CRM(빅데이터·마이크로데이터) → 계좌개설(eKYC·OCR·안면인식) → 매매체결(MTS/HTS·SOR·FEP·NXT 라우팅) → 청산·결제(KSD 연계) → 후선업무·백오피스(RPA·회계·원장) → 리스크관리(NCR·VaR·FDS) → 고객서비스(챗봇·LLM)로 이어지며, 모든 단계가 IT 의존적입니다. 특히 **매매체결·FDS·생성형 AI 리서치**가 최근 3년 투자 집중 포인트입니다. 전통적으로 증권사의 경쟁력은 영업점 네트워크·리서치 브랜드·대형 딜 수행 능력에서 비롯됐지만, 2020년 이후로는 이 가치사슬 전 구간이 디지털 채널 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IT가 "지원 기능"에서 "1차 수익 창출 기능"으로 위상이 상승했습니다. 예컨대 매매체결 단계에서 수 밀리초의 지연 차이가 곧 고객 이탈·기관고객 유치 실패로 이어지고, FDS(Fraud Detection System) 단계에서 AI 모델의 정확도 차이가 보이스피싱·명의로용 피해 보상액 수익 원 단위로 직결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IT 투자는 "원가"가 아니라 "수익 방어·확장 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화투자증권처럼 자본 경쟁이 어려운 회사일수록 IT를 통한 가치사슬 최적화가 회사 전체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동합니다.

1.4 규제 환경: 완화와 강화의 동시 진행

규제는 이중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화**는 망분리 3단계 로드맵·클라우드 확대·SaaS 예외·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가 대표적이고, **강화**는 전자금융사고 보고 의무·ISMS-P 인증 확대·금융보안원(FSEC) 점검 강화·PF 자기자본비율 20% 단계 도입(2027년 목표, 2025년 12월 발표)·자본시장법상 ATS 거래량 상한입니다. 이 양면성은 "기술 도입 속도는 빨라지지만 보안·리스크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는 방향으로 증권사 IT 인력 요구 프로파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망분리 완화가 생성형 AI·SaaS·오픈소스 활용의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MLS(Multi-Layered Security) 체계 전환을 통해 구간별·데이터별 보안 강도를 재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ISMS-P 통합 인증이 392개 점검항목을 단일 프레임에 통합하면서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의 이원 관리 부담은 줄었지만 심사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PF 자기자본비율 20% 규제는 직접적으로 IT 업무는 아니지만, 내부 리스크 한도관리 시스템과 건별 PF 익스포저 산출 로직의 개편을 필요로 하며, 이는 곧 IT·리스크 부서 공동 과제가 됩니다.

1.5 시장 규모와 성장률의 재해석

국내 증권업의 시장 규모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은 "위탁매매 수익 + IB 수익 + 운용 수익"의 총합이지만, 디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디지털 전환기에는 여기에 "플랫폼 트래픽 가치 + 보유 디지털자산 평가이익 + 신규 라이선스 프리미엄"이 더해져야 실제 경제가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토스증권의 자체 손익만 보면 중형사 수준이지만 토스뱅크·토스페이 등 그룹 플랫폼과의 시너지, 다운로드·MAU 기반 기업가치는 그 이상의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자체 영업이익 1,474억 원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잠재가치, 구체적으로는 두나무 지분 평가의 (한때 1조 원 이상), 토스뱅크 지분, 드림플러스 네트워크를 통한 스타트업 지분 등이 장외 자산으로 존재합니다. 디지털금융-IT 직무 지원자는 단순히 증권업 시장 규모가 아니라 "플랫폼·데이터·라이선스가 증권사의 기업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라는 관점을 가질 때 본인의 업무가 재무 성과로 번역되는 경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중형 증권사 소속 IT 인력은 이제 "대형사를 기술로 따라잡는 전략적 R&D 인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면접에서는 "중형사라는 자원 제약 속에서도 STO·RWA·ATS·AI처럼 대형사와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신규 영역"을 언급하고, 본인의 기여 포인트를 "플랫폼 차별화·외부 제휴·신규 규제 대응 속도" 중 하나로 구체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MTS·API·마이데이터 등 고객 접점 시스템에서 대형사 대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빠른 배포 주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둘째 STO·RWA·AI처럼 아직 업계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영역에서 한화투자증권이 선점할 수 있는 유즈케이스(예: 두나무 네트워크를 활용한 토큰증권 유통, Securitize 네트워크 기반 해외 RWA 연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셋째 망분리 완화·클라우드 확대 같은 규제 변화의 과도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것인지를 세 질문에 대해 본인 만의 답을 준비해 두는 것이 면접에서 강한 차별화를 만들어냅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한화투자증권 포지셔닝

2.1 대형 5사와 중형권 지형

2025년 3분기 말 별도 자기자본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 12조 219억 원, 미래에셋증권 10조 3,105억 원, NH투자증권 8조 3,667억 원, 삼성증권 7조 3,863억 원, 메리츠증권 7조 1,917억 원, KB증권 6조 8,645억 원, 하나증권 6조 1,057억 원, 키움증권 5조 7,862억 원, 신한투자증권 5조 6,311억 원, 대신증권 3조 7,312억 원의 순서로 상위권이 정렬돼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5년 업계 최초 '영업이익 2조 클럽'에 진입해 IMA 인가를 획득했고, 미래에셋증권도 IMA, 키움은 발행어음 인가를 추가했습니다. 대신증권은 2024년 12월 10호 종투사 지정에 이어 2025년 말 자기자본 4조 1,345억 원으로 초대형 IB 요건까지 충족하며 중형 → 대형 이행을 시도 중입니다. 이 순위표의 의미는 단순한 자본 크기 비교를 넘어서, 라이선스 계층과 수익 구조의 격차를 구조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IMA 2사는 8조 원 이상 자본 기반으로 발행어음 한도와 무관하게 종합투자계좌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초대형 IB 7사는 발행어음을 통한 저비용 조달을 할 수 있으며, 종투사 10사는 전담중개업무와 기업신용공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 피라미드에서 종투사 요건(3조) 미달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시장에서 대형사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으로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중형권(자기자본 1~2조 원대)에는 한화투자증권(연결 2조 682억 원)·교보증권(약 1.6조)·iM증권(구 하이투자증권, 약 1.3~1.5조)·IBK투자증권(약 1.1조)·현대차증권(약 1.2조)·BNK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이 포진합니다. 브랜드 측면에서는 2024년 하이투자 → iM증권, 이베스트 → LS증권으로의 사명 전환이 있었고, 한화투자증권은 사명은 유지하되 STEPS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 비전으로 콘텐츠 차원의 리브랜딩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형권의 공통 과제는 "어떻게 대형사로 올라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특정 영역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보할 것인가"로 요약되며, 각사는 모회사·계열·역사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교보증권은 생명보험 그룹 내 자산관리, iM증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권은 DGB금융지주 편입 후 지방 네트워크와 PF, IBK투자증권은 중소기업 IB, 현대차증권은 그룹 퇴직연금,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글로벌-RWA라는 식으로 색깔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2.2 대형 5사의 색깔 비교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세전이익 약 2.08조(+70%)·영업이익 1.92조·순이익 1.59조로 브로커리지 점유율 1위이자 xAI·스페이스X 등 해외 비상장 자산 평가이익이 특징입니다. 특히 해외 네트워크(미국·홍콩·베트남·인도 등)와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의 두께가 경쟁사를 압도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잔고가 17.3조 → 21.5조로 증가하며 IMA까지 확보, 전통 IB·운용 양면에서 강세입니다. IMA 인가로 발행어음 한도 제약 없이 대규모 기관성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대체투자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관·외국인 MS 확대로 IMA 인가를 바라보며 6,500억 증자를 단행했고, 농협그룹 기반의 안정적 리테일 채널과 채권·IB 강자의 결합이 특징입니다. **삼성증권**은 WM·해외주식·배당(2024년 배당수익률 약 8%)에서 압도적이며 삼성그룹 임직원·계열사 자금관리를 바탕으로 한 High-end WM 포지션이 공고합니다. **KB증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자기 자본 대비 50% 이상으로 관리 부담이 존재하지만, 은행 계열의 통합 금융플랫폼(KB스타뱅킹)과의 연계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즉 대형 5사는 "자본 레버리지 × 상품 다변화 × 글로벌 진출"이라는 공통 문법을 공유하되, 각사별로 브로커리지(미래에셋)·발행어음(한투)·WM(삼성)·네트워크(NH)·시너지(KB·신한)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디지털금융-IT 지원자는 이 5사의 색깔을 암기 수준으로만 알지 말고, "내가 한화투자증권 IT에서 일하게 될 때 비교군이 이들 대형사인지, 아니면 iM·교보·IBK·현대차처럼 자본 규모가 유사한 중형사인지"라는 포지셔닝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MTS·마이데이터 같은 공통 서비스 영역에서는 대형사와 UX·성능이 비교되고, STO·RWA·글로벌 같은 신규 영역에서는 대형사 컨소시엄(NFI·PULSE)과 직접 경쟁합니다. 즉 경쟁의 형태가 영역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3 한화투자증권 포지셔닝: 중형 상위·디지털 상위·IB 회복기

한화투자증권은 자기자본 2.07조 원(연결, 2025년 말)으로 중형권 최상위, 대형 최하위(대신증권)와 교보증권 사이에 위치합니다. 2024년 연결 영업이익이 40억 원까지 축소됐다가 2025년 1,474억 원·순이익 1,018억 원으로 급반등, NCR은 670% → 863%로 개선됐습니다. 이 반등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첫째 2025년 국내외 증시 활황에 따른 브로커리지·운용이익 증가, 둘째 2023~2024년 선제 적립한 PF 총당금 덕분에 2025년 추가 부담이 경감된 점, 셋째 두나무·Securitize 등 보유 디지털 자산의 평가 재평가입니다. 부문별 2025년 연결 손익은 IB 491억(전년 249억 적자에서 흑전), 트레이딩 415억, 홀세일 188억, WM 수수료수익 2,812억(+617억)으로, 대형사 대비 **트레이딩·PI 의존도가 높고 리테일 비중이 작은 특수한 수익 구조**를 보입니다. 이 수익 구조는 한편으로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상대적 노출이 크다"는 리스크를 내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대비 고효율 PI·트레이딩 전략"이라는 한화투자증권의 전통적 강점을 드러냅니다.

디지털 경쟁력에서는 2017년 업계 최초의 MZ 친화 간편투자 앱 **STEPS**를 출시한 이래, 2024년 하반기 SmartM과 STEPS를 통합한 "**한화투자증권 MTS**" 출시, 토스 앱 제휴(계좌개설·채권·ELB·연금저축·ETF 자동매수 확장)로 "**자사 앱 + 외부 플랫폼 듀얼 채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MAU 경쟁에서 키움·미래에셋·삼성·KB의 고착된 상위권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토스라는 2천만 MAU 플랫폼의 상품 판매대를 일정 부분 대여받는 방식으로 고객 접점을 확보합니다. 다만 자체 브로커리지 MS는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MAU·DAU 절대 규모는 대형사와 차이가 유지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디지털금융-IT의 과제는 자체 MTS의 UX·성능을 유지해 충성 고객을 지키는 동시에, 토스 등 외부 플랫폼과의 API·백엔드 연계를 확장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이중 과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2.4 SWOT 관점

강점(Strength)은 한화그룹 계열의 자본조달·브랜드 신뢰, 두나무 5.94%·토스뱅크 약 8~10% 지분 등 디지털 자산, STEPS·통합 MTS, 베트남(파인트리증권)·싱가포르·인도네시아(Ciptadana) 3국 동남아 네트워크입니다. 그룹 시너지 관점에서 한화생명(최대주주)·한화자산운용·한화손해보험·한화은행(협력 관계) 등과의 상품·채널 교차 판매 여지는 중형사 중 가장 큼니다. 약점(Weakness)은 대형 5사 대비 1/5 수준의 자기자본, 초대형 IB·IMA 원천 배제, 브로커리지 MS 열위, 2024년 PF 총담금 부담에 따른 실적 변동성입니다. 더하여 2022년 이후 4년 연속 무배당으로 주주환원 공백이 있다는 점은 주주·투자자 신뢰 측면에서 부담 요인입니다. 기회(Opportunity)는 STO 제도화, NXT 참여를 통한 매매 인프라 다변화, 토스 플랫폼 제휴 확장, 2025~2026년 시장 활황, 퇴직연금 RA 개방,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통합 시너지 강화입니다. 위협(Threat)은 부동산 PF 잔존 리스크(2024년 3Q 요주의이하 8.8%), 대형사 쏠림 가속, 토스·카카오페이증권의 리테일 침투, CEO 교체에 따른 전략 변동성, 2027년 PF 자기자본비율 20% 규제입니다.

이 SWOT를 디지털금융-IT 직무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강점은 "IT 투자 재원이 그룹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 "디지털 자산·플랫폼 관련 전략적 레퍼런스가 이미 존재한다"로 번역되고, 약점은 "대형사 대비 팀 규모·벤더 협상력이 작아 개인에게 요구되는 업무 범위가 넓다"로, 기회는 "신규 카테고리에서 선점자 지위를 잡을 수 있는 속도감"으로, 위협은 "리스크·보안·규제 측면의 실수를 용납하기 어려운 재무 구조"로 해석됩니다. 즉 지원자는 좁은 팀에서 넓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T자형 역량, 신규 영역 학습 속도, 리스크 통제 감수성이라는 3대 축에서 자신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5 최근 6개월 핵심 이슈 (2025년 하반기~2026년 4월)

첫째, 최고경영진 교체입니다. 2023년 3월 취임한 한두희 前 대표는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으나, 2025년 7월 **한화생명 부사장 출신 장병호**가 신임 대표로 내정돼 2025년 9월 1일 임시주총에서 선임(임기 2027년 3월)되었습니다. 이는 "한화생명-한화투자증권-한화자산운용"의 **금융계열사 시너지 강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한두희 대표는 재직 중 디지털 전환·PF 정리·STEPS 리뉴얼·토스 제휴 등 굵직한 전환 과제를 추진했고, 장병호 대표는 그 연속선상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라는 더 선명한 카테고리 정의를 앞세우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금융-IT 입장에서 이 교체가 **IT 부문 예산·권한의 재분배**는 실무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디지털혁신 부문이 부문급으로 격상된 조직 개편이 그 증거입니다.

둘째,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 비전이 2025년 11월 '2026 경영전략회의'에서 공식 선포됐고, 미국 STO 플랫폼 Securitize의 SPAC 합병 IPO에 PIPE 투자를 약정했습니다. Securitize는 블랙록·애플로비 등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의 토큰화 프로젝트에 사용된 플랫폼으로, 한화투자증권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RWA 네트워크에서의 좌석"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국내에서 STO 법제화가 진행될 때 한화투자증권이 단순히 국내 발행·유통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 **해외 RWA 상품을 국내에 연결하는 허브**로 기능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셋째, 인도네시아 Ciptadana Sekuritas Asia 80% 인수(2024년 10월 완료)로 3각 동남아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Ciptadana는 인도네시아 리포(Lippo)그룹 계열의 중형 증권사로 현지 ECM 상위권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통해 베트남(파인트리)·싱가포르·인도네시아 세 개 축의 동남아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 IB 딜 수행뿐 아니라 현지 MTS·계좌시스템의 멀티리전 운영이라는 IT 관점의 도전을 포함합니다.

넷째, 넥스트레이드 주주 참여 및 SOR 연동으로 ATS 거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도 NXT 공동 출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거래 참여사로서의 SOR·최선집행 시스템 구축은 이미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섯째,**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한화에너지-(주)한화 승계 이슈로 그룹 전반 지배구조 리레이팅의 간접 수혜(2024년 7월 한화에너지의 (주)한화 공개매수, 2025년 3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 지분 증여, 2025년 12월 한화에너지 지분 20% 한국투자PE 매각)가 진행되며 그룹사 주가 모멘텀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여섯째, 2026년 1월 27일 실적 공시 당일 주가 +8.08%(6,085원) 급등**, 시가총액 약 1.18조 원으로 디지털자산·두나무 IPO 기대가 실적과 맞물렸습니다. 이 주가 반응은 시장이 한화투자증권의 영업 실적뿐 아니라 **보유 디지털 자산의 잠재가치**를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2.6 경쟁사 벤치마크 관점: 중형사 간 디지털 경쟁

중형사 간 디지털 경쟁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보증권은 2024년 차세대 원장 시스템 전환을 단행하며 MSA-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이행을 추진했고, iM증권은 DGB그룹 통합 슈퍼앱 'iM뱅크' 체계 아래에서 지방 고객 기반의 모바일 전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대차증권은 퇴직연금·금리상품 중심 플랫폼에 집중하는 등 회사별로 색깔이 다릅니다. 이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 전문"이라는 비교적 선명한 포지셔닝을 확보했는데, 이 포지셔닝이 성공한다면 중형사 간 경쟁에서 벗어나 토스·카카오페이증권·두나무 등 **신규 디지털 금융 플레이어와의 비교군**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비교 기준은 자본총액이 아닌 플랫폼 MAU·토큰화 자산 규모·해외 파트너십 수 등으로 바뀌게 되며, 디지털금융-IT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 구성도 함께 재편될 것입니다.

2.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지원자는 면접에서 한화투자증권을 "브로커리지 2류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RWA·STO 카테고리의 1급 플레이어"로 재정의하는 내러티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두나무 지분을 계속 보유하기로 한 자본 배분 결정 →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비전 → STEPS·토스 제휴 → Ciptadana·파인트리 동남아"로 이어지는 전략적 일관성을 꿰뚫어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추가로 "미래에셋·한투 같은 대형사가 규모로 가는 길과 달리, 한화투자증권은 카테고리를 새로 정의해 들어가는 길을 택했고, 그 길의 성패는 디지털금융-IT 조직의 기술 역량에 달려 있다"는 논리를 자기 언어로 정리해 두면, 지원 동기·직무 포부가 회사 전략과 합치하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3장] 한화투자증권 심층 분석

3.1 지배구조와 재무 골격

한화투자증권은 1962년 성도증권으로 설립돼 1976년 한화그룹 편입, 2012년 푸르덴셜투자증권 합병을 거쳐 현재의 상회를 확립한 KOSPI 상장사(종목코드 003530)입니다. 최대주주는 **한화생명보험(약 26.5%)** 등 한화그룹 계열이며, 외국인 지분율은 약 8.86%입니다. 60여 년에 걸친 사명 변천(성도증권 → 한국신탁은행증권 → 한양증권 등 거쳐 한화증권 → 한화투자증권)은 한화그룹이 산업 계열에서 출발해 1970년대 대한생명(現 한화생명) 인수를 통해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2010년대 푸르덴셜투자증권 합병과 한화생명 중심 금융 계열화 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지배구조로 재편됐음을 보여줍니다. 이 역사는 한화투자증권이 **한화생명 자회사 체제**라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데, 이는 은행지주 계열(KB·신한·하나·우리·NH)·산업지주 계열(미래에셋·메리츠·키움·교보·삼성)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유형의 증권사 소유구조입니다.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2조 682억 원(+21.2%)·자산총계 17조 3,579억 원(+23.8%)·NCR 863%로 재무건전성은 업계 평균을 상회합니다. NCR(순자본비율, 금융투자업자 건전성 지표)이 863%라는 것은 규제 최저선(100%)의 8.6배 수준으로, 추가적인 자산 확장·투자 여력이 충분함을 뜻합니다. 2023~2025년 영업수익은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2조 1,148억 → 2조 4,958억 → 3조 946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387억 → 389억 → 1,018~1,020억 원, ROE는 2%대 → 2%대 → 약 5%대로 개선됐습니다. ROE 5%대는 대형사 10~15% 대비 아직 격차가 있지만, 자본 증자가 병행된 상태에서 이 정도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수익성 회복의 **추세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속적인 ROE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자본 1원당 수익을 더 많이 뽑아내는 디지털 플랫폼·AI 기반 수익 모델이 요구되며, 이는 디지털금융-IT 직주가 해결해야 할 숙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3.2 부문별 실적과 수익 엔진

2025년 연결 부문별 손익에서 **IB는 전년 249억 적자 → +491억 흑자전환**(인수금융·대체투자 회복), **트레이딩 +415억**(PI 운용익 확대), **홀세일 +188억**, WM 수수료수익 2,812억 원(+617억)으로 전 사업부문 동반 개선이 확인됩니다. 3분기 누적으로도 영업이익 1,225억·순이익 879억, 3분기 단독 영업이익 376억(YoY +578%)으로 **증시 거래대금 증가 + PF 부담 정상화 + 두나무 등 보유자산 가치 재평가** 3중 호재가 작용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이 40억 원까지 축소됐던 것은 부동산 PF 총당금의 선제 적립 때문으로, 2025년은 **기저효과와 체질 개선의 합산 결과**입니다.

부문별 의미를 좀 더 풀어 보면, IB 부문의 흑전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인수금융·대체투자 파이프라인이 회복됐다**는 신호이며, 이는 IT 관점에서 딜 플로우 관리 시스템(Deal Pipeline·CRM), 자산 평가·보고 시스템, 규제 보고 자동화(RegTech)의 수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딩 415억은 PI(자기자본 투자)·S&T(Sales & Trading) 운용익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VaR·스트레스 테스트)·FEP(Front-End Processor)·알고리즘 트레이딩 플랫폼이 지속 고도화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WM 수수료수익 2,812억은 리테일·자산관리 축의 안정적 플로우 수익으로, 여기에는 MTS·상담봇·마이데이터·PB CRM이 맞물려 있습니다. 즉 어떤 부문이 돈을 버는지와 IT가 어떤 시스템을 지원하는지는 1:1로 매핑 가능하며, 지원자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부문과 연결된 시스템군을 미리 매핑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3 중장기 전략: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 Global RWA Hub"

한두희 前 대표 시기 3대 전략(**PF 의존 축소·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동남아 네트워크**)은 장병호 체제에서도 유지·강화됩니다. 장 대표는 2025년 9월 취임 일성으로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전환"과 "Global No.1 RWA Hub"를 공식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으로 **디지털혁신실 → 디지털혁신 부문(부문급 승격)**, **STO·온체인·글로벌 총괄 미래전략실 신설**, **디지털자산리서치팀 신설**, **사내 디지털 역량 강화 전담 교육 조직** 신설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곧 **디지털금융-IT 인력의 조직 내 권한·자원 배분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조직 구조 변화의 심층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혁신실이 부문으로 격상됐다는 것은 사내 의사결정 체계에서 **임원급 대표권이 부여**되었다는 뜻이며, 예산·인력 확보·경영회의 참석·대외 파트너십 체결 권한이 실·팀 수준에서 부문 수준으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미래전략실이 STO·온체인·글로벌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 세 영역이 단일 전략 축으로 통합 관리된다는 뜻이며, 지원자가 담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국내 STO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RWA 파트너십 + 온체인 프로젝트 + 글로벌 법인 연동"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디지털자산리서치팀 신설은 "투자 의사결정의 새로운 기초 자료가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생산된다"는 것으로, IT 조직이 단순 지원자가 아니라 콘텐츠·데이터·인사이트의 공급자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4 STEPS와 통합 MTS: 디지털 플랫폼의 심장

STEPS는 2017년 3월 초보·MZ 투자자용 간편투자 앱으로 출시돼 2021년 iOS·Android 동시 전면 UX/UI 개편, 달러RP 자동투자·매도 후 즉시출금·소수점 주식 '천원샵' 등 **증권사 앱 UX 혁신의 레퍼런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다. 이 앱은 당시 대형사들이 여전히 HTS를 그대로 모바일로 옮긴 기능 중심 설계에 머물러 있던 반면, 한화투자증권은 초보자 온보딩·소액 투자·콘텐츠 피드·소수점 거래 같은 **"앱 네이티브" 경험 설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업계 UX 벤치마크를 재정의한 사례입니다. 이후 토스증권이 2021년 출범하며 유사한 UX 철학을 더 크게 확산시켰지만, 그 원형은 STEPS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기존 일반 MTS인 SmartM과 통합한 "한화투자증권 MTS"가 출시돼 AI 자연어 검색·개인화 홈·HTS급 상품거래·완결형 비대면 서비스를 탑재했습니다. 이 통합은 단순한 앱 병합이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절감·개발 리소스 집중·고객 분리 문제 해결**이라는 운영 효율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조정이며, 실제로 유사 전략을 추진한 삼성증권·KB증권 등도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토스 앱 내 한화투자증권 계좌개설·채권·ELB·연금저축·ETF 자동매수**를 순차 오픈하며 **플랫폼-in-플랫폼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스토어 누적 다운로드 50만 이상, 평점 4.1로 대형사 대비 트래픽은 부족하지만 **UI 단순성·콘텐츠형 리서치**는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금융-IT 관점에서 보면, STEPS-통합 MTS의 다음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AI 자연어 검색·챗봇의 고도화로, 이는 LLM 파인튜닝·검색 증강 생성(RAG)·사내 리서치 데이터 벡터화 같은 기술 스택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토스 등 외부 채널과의 연동 확장에 따른 API-이벤트 기반 백엔드 재설계로, 이는 Kafka-이벤트 소싱·MSA 기반 재구축과 맞물립니다. 셋째는 NXT·KRX를 넘나드는 최선집행·SOR 고도화와 12시간 확장 거래에 따른 관측가능성·운영 대응력 강화입니다. 이 세 과제가 앞으로 2~3년간 한화투자증권 디지털 분야의 핵심 로드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5 차별화 포인트 4가지

첫째, 한화그룹 금융·산업 시너지입니다. 한화생명(최대주주)·한화손보·한화자산운용과 상품·채널을 공유하고, 한화에너지·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방산·조선 대형 IB 딜에 공동 주관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병호 대표의 선임 자체가 **"금융계열사 시너지 극대화"** 의지의 상징입니다. 이 시너지가 IT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는 개인정보·마이데이터·통합 자산관리 영역에서 계열사 간 데이터 연계·공유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계열사 간 API 게이트웨이·보안·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요구됩니다.

둘째, 동남아 3각 네트워크입니다. 베트남 파인트리증권(2019년 HFT 인수, 2025년 매출 216억·세전이익 43억, 현지 Top 10 리테일 브로커, PineX·Stock123·Alpha Trading 3종 MTS 운영), 싱가포르 파인트리 법인(2020), 인도네시아 Ciptadana Sekuritas Asia 80% 인수(2024.10, Lippo그룹 계열, 현지 ECM 상위권)로 구성됩니다. 이 3각 네트워크는 단순히 해외 진출의 의의를 넘어 **국내에서 구축한 디지털 플랫폼의 글로벌 레버리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만든 MTS·RA-데이터 플랫폼을 현지 규제에 맞춰 변형·이식하거나, 반대로 인도네시아·베트남의 고속 성장하는 리테일 시장에서 얻은 유즈케이스를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순환 구조가 가능합니다. IT 부문에게 이는 다국어·다문화·다리전 인프라의 설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플랫폼이며, 경력 관점에서 매력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셋째, 디지털 보유자산입니다. **두나무 5.94%** 지분(2021년 583억 원 취득가 → 한때 평가이익 1조 원 이상)은 한화투자증권의 디지털 포지셔닝의 '앵커 애셋'이며, 토스뱅크 지분 약 8~10%, 드림플러스(2014년 출범, 63빌딩 핀테크센터·강남 2곳, 누적 200여 개 스타트업 육성)를 통한 토스·컬라·당근 간접 네트워크까지 더하면 **시가 총액(약 1.18조 원)과 비슷한 규모의 잠재가치**가 장외에 존재합니다. 이 자산들은 단순한 재무 이익을 넘어 업비트·토스·다양한 스타트업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STO·RWA·마이데이터·핀테크 협업의 실질적 지렛대**로 기능합니다. 예컨대 두나무와의 관계는 향후 가상자산·토큰증권 통합 유통 인프라 구축 시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토스뱅크 지분은 간편결제·뱅킹 연계 서비스 설계에서 의사소통 채널을 짧게 만들어줍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넷째, 콘텐츠형 리서치로 매거진 포맷의 '메인디쉬·사이드디쉬' 자산전략 보고서 등 차별화 브랜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리서치 콘텐츠는 고객 Lock-in·MTS 트래픽·ISP(업계 담론 주도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B2C 자산이며, 이 역시 데이터·AI·퍼블리싱 인프라의 IT적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콘텐츠 관리 시스템, 추천 알고리즘, 뉴스레터·푸시 자동화, 리서치 DB 검색 엔진 등이 백엔드에서 움직입니다.

3.6 리스크 요인 5가지

첫째, 자기자본 규모 열위로 2025년 2.07조 원은 한국투자증권 10.5조·미래에셋 10.3조 대비 1/5 수준이며, IMA(8조)·발행어음(4조) 원천 배제됩니다. 이 열위는 단기간에 메꾸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며, 증자나 그룹 출자 없이 유기적 내부 유보만으로 초대형 IB 진입을 달성하려면 ROE 15%대를 지속 유지하며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은 당분간 "라이선스 계층의 제약 속에서 가능한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디지털·비자본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둘째, 부동산 PF 익스포저로 2023~2024년 총당금 집중 적립 경험이 있고, 금융당국이 2027년 도입 예정인 **PF 자기자본비율 20% 규제**가 중소형 증권사에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2025년 9월 말 금융권 PF 익스포저 177.9조 원). 한화투자증권도 과거 PF 중심 IB로 수익을 올린 이력이 있으며, 2023~2024년 선제 적립한 총당금은 이 익스포저 정상화의 흔적입니다. 향후 2027년 규제 도입을 전후로 추가 자본 소요 또는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IT 관점에서도 리스크 시스템·자본 관리 솔루션의 대대적 업데이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셋째, 수수료 경쟁·디지털 후발주자 리스크로 토스·카카오페이증권의 무료/저수수료 공세, 키움·KB·삼성의 MAU 상위권 독점이 이어집니다. 리테일 브로커리지 수수료 자체가 0에 수렴하는 흐름에서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는 전 증권사의 공통 숙제이고,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글로벌·시너지에서 답을 찾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넷째, CEO 교체**에 따른 단기 전략 변동성이 있고, **다섯째, 2022년 이후 4년 연속 무배당**으로 주주환원 공백이 잔존합니다. 무배당이 직접적 IT 업무 영향은 아니지만, 주주·시장의 반응을 통해 추가 증자·구조조정·사업 재편 압력이 들어올 때 IT 투자 우선순위가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3.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디지털금융-IT 지원자는 "자기자본 한계라는 구조적 제약을 기술 레버리지로 상쇄하는 실무 능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토스 제휴처럼 외부 플랫폼에 올라타는 API/SDK 역량**, ② **STEPS·통합 MTS 리뉴얼에서의 UX·성능·관측 가능성**, ③ **Ciptadana·파인트리 같은 글로벌 현지 MTS 구축**, ④ **두나무·Securitize를 활용한 STO·RWA 인프라 중 하나를 직무 포부의 핵심 테마로 삼는 전략**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자기소개서 단골 문항인 "지원 동기"·"입사 후 포부"는 이 네 가지 테마 중 하나를 본인의 경험·관심사·기술 스택과 결합해 구체적 시나리오로 풀어내면, 회사의 전략과 지원자의 커리어 희망이 자연스럽게 접속하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컨대 "저는 MSA·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경험을 살려 한화투자증권 MTS와 토스 플랫폼 간 API 연동의 확장성·안정성을 책임지겠습니다"와 같이 구체화하면, 단순 포부 선언을 넘어 실행 가능한 기여 포인트를 제시하는 답이 됩니다.

[4장] 인재상·조직 문화·디지털금융-IT 도메인 선호 인재

4.1 한화그룹 공식 인재상과 핵심가치

한화그룹은 창업주 김종희 회장으로 부터 이어진 "신용과 의리"라는 한화정신을 경영의 뿌리로 삼고, "도전(Challenge)·헌신(Dedication)·정도(Integrity)"의 3대 핵심가치를 공식 인재상으로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① 기존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혁신으로 최고를 추구하는 '도전적인 한화인', ② 회사·고객·동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 목표에 혼신을 다하는 '헌신적인 한화인', ③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과 공정으로 행동하는 '정도의 한화인'입니다. 이 3대 가치는 한화그룹이 1952년 한국화약으로 출발해 방산·화학·정유·생명·건설·조선·방산·항공·에너지·금융을 아우르는 10대 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문화 키워드를 압축한 것이며, 특히 방산·화학 등 **안전·정밀성이 생명을 좌우하는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된 원칙 준수 감각**이 '정도'에 짙게 녹아 있습니다. 한화인 채용 포털은 이를 "**Great Challenger**" — "멀리 보는 사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훌륭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실행력을 함께 갖춘 사람, 업계 관행을 뒤집는 대담한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재정의합니다.

3대 가치를 금융·IT 맥락에서 재번역하면, '도전'은 "STO·RWA·AI 등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감수하고 도입하는 태도", '헌신'은 "긴 호흡의 차세대 원장·MTS 통합 같은 프로젝트를 완주하는 지구력", '정도'는 "고객 자산과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금융 IT에서 규제·보안을 설계 단계에 내재화하는 원칙주의"로 해석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이 세 가지 번역을 사전에 본인의 언어로 준비해 두는 것이 면접에서의 가치 질문에 대해 한 차원 깊은 답을 제시하는데 유리합니다.

4.2 한화투자증권의 실질 인재상: "성과·실행 중심의 디지털 챌린저"

한화투자증권은 별도 CI 차원의 독립된 인재상을 명문화하지 않고 그룹 인재상을 준용하되, 2026년 디지털/글로벌 경력 채용 포털(recruit-hanwhawm.com)에서 "근속 연수·직급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해 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성과·실행 중심의 디지털 챌린저상**을 실질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전환"이라는 비전과 결합되어 "금융 안정성 + 디지털 혁신성"이라는 이중 기준을 지원자에게 요구합니다.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첫째로 채용 평가의 주된 잣대가 "이력서상 숫자"가 아닌 "해결한 문제와 완성한 프로젝트"라는 점, 둘째로 입사 후에도 근속·승진보다 실질 기여가 평가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IT 직무 지원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IT는 본래 프로젝트 단위로 성과가 가시화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담당할 프로젝트의 범위·지표·결과를 명확히 언어화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한화투자증권은 상대적으로 공정한 평가 환경을 제공합니다.

4.3 3중 레이어 조직 문화

한화투자증권의 조직 문화는 3개 층위로 구성됩니다. 첫째 층(그룹)은 방산·화학 계열에서 이어진 정도경영·책임감·장기 고용 문화이며, IMF 당시 고용 승계를 지킨 한화그룹의 전통이 대표적입니다. 이 층은 증권업의 단기 성과 지향성과는 다른 방향의 무게 추를 제공하며, 위기 시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톤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층(증권업)은 장중 시간 구속적 업무 리듬과 리그테이블·KPI 중심 성과주의입니다. 매매·체결·파생 업무는 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 고밀도 집중력을 요구하고, IB·WM 조직은 반기·연간 리그테이블과 AUM 목표로 압축 평가되므로 성과주의 색채가 강합니다. 셋째 층(디지털 부문)은 STEPS 출시 이래 디지털전략실을 팀이 아닌 서비스·기능 단위 **애자일 조직**으로 운영해 온 수평·자율 문화입니다. 장병호 대표 취임 이후 디지털혁신 부문 승격, 미래전략실·디지털자산리서치팀 신설로 이 세 번째 층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화투자증권의 IT 인력은 "그룹의 원칙성 + 증권업의 성과성 + 디지털의 수평성"을 동시에 체화해야 합니다. 지원자 관점에서 이 세 층의 조화는 한편으로 "원칙·성과·속도를 동시에 요구받는 높은 기준"이라는 긴장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안정성과 스타트업의 역동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이례적 환경"이라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면접 답변에서도 이 세 가지 속성을 균형 있게 체화한 지원자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4 디지털금융-IT 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5가지

첫째, 금융 도메인 × IT 기술의 교차 역량입니다. 주문·체결·원장·예약결제·세제·파생·STO 등 자본시장 업무 지식을 Java/Spring·DB·클라우드·보안 기술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발자로서의 기술 스택만 강한 사람보다, "내가 짠 로직이 고객의 세후 수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자본시장법 어느 조항에 저촉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원자는 금융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AFP·AFPK 등)이나 자발적 자본시장 공부 경험을 통해 이 교차 역량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Compliance-by-Design 마인드셋입니다.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ISMS-P 392개 점검항목을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하는 사고가 기본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컴플라이언스는 "완성된 제품을 사후 점검하는 단계"로 여겨졌지만, 최근 금융 IT는 개발 프로세스의 매 단계에서 규제·보안·개인정보 요구사항을 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DevSecOps·보안 코드 리뷰·개인정보 영향평가(PIA)·표준 API 연동 절차 준수 같은 실무가 여기에 해당하며, 지원자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답변에 녹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안정성·정확성 우선 사고입니다. "오류 1건 = 수십억 원 보상"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보수적이고 정형화된 트랜잭션 운영 원칙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증권사 IT의 장애가 갖는 사회적 파급력은 일반 기업의 그것과 다릅니다. 2023년 키움증권의 반복 장애로 인해 금감원 조치와 1,250억 원 IT 투자 확약까지 이어진 사례가 상징적으로 이 점을 보여줍니다. 지원자는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는 성향"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성향"이 양립 가능함을 본인의 사례로 보여줘야 합니다.

넷째, 다부서 번역자 역량입니다. 리테일·WM·IB·트레이딩·리스크·준법감시·CISO·외부 벤더 간 언어 번역자·조정자 역할이 요구되며, 차세대 원장 같은 18~24개월 장기 프로젝트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금융 IT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단일 팀이 완결할 수 없는 구조이고, 영업·리스크·준법·운영·외부 벤더의 요구가 한 시스템 안에서 충돌합니다. 이 충돌을 감지·번역·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시니어로 성장합니다. 지원자는 과거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조율한 경험을 구체 사례로 준비해 두는 것이 면접의 '인성·조직적합성' 질문에 강한 답이 됩니다.

다섯째, 변화 속도 대응력입니다. NXT(2025.3) 출범, SOR 의무화, STO 제도화(2026),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에이전트 트레이딩 등이 동시다발로 닥치는 환경에서 학습 속도와 실행 결단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중형사는 대형사처럼 외부 컨설팅·대형 벤더에 방대하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인력 한 사람이 새로운 기술 영역을 빠르게 학습·적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결정적입니다.

4.5 면접 활용 포인트

면접에서 한화 핵심가치(도전·헌신·정도) 세 단어를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도전 = 디지털 자산 전환이라는 업계 관행을 뒤집는 목표, 헌신 = 18개월짜리 차세대 원장·MTS 통합 프로젝트 완주, 정도 = Compliance-by-Design 원칙"처럼 본인의 프로젝트 에피소드를 세 가치에 매핑해 설명하면 "한화인 + 디지털 챌린저 + 금융 IT 전문가"의 세 정체성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면접관이 흔히 던지는 "우리 회사가 왜 너를 뽑아야 하는가" 유형의 질문에는 "한화투자증권이 추구하는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비전은 대형사가 가는 길과 다른, 자본이 아닌 기술·파트너십 기반의 길이고, 이 길에서는 저처럼 [본인의 특정 기술·경험·태도]를 가진 사람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습니다"와 같이, 회사의 전략 좌표와 본인의 역량 좌표가 맞물리는 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이때 세 가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치(도전·헌신·정도)를 자연스럽게 삽입하면 그룹 가치와 개인 가치의 정렬까지 동시에 전달됩니다.

4.6 조직 문화 적응의 실무적 지침

입사 후 첫 1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화투자증권 디지털금융-IT 조직에 적응하는 데 결정적인 세 가지 실무적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어의 정확성**입니다. 금융-IT 용어는 본사·계열사·규제 당국·벤더별로 미묘하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초반에 정확한 용례를 익히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누적됩니다. 둘째는 **문서화 규율**입니다. 증권사 IT는 장애·감사·금감원 조사 시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문서로 증명해야 하며, 이 습관이 몸에 배어야 시니어로서의 신뢰가 쌓입니다. 셋째는 **현업과의 관계 자본**입니다. IT 혼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으며, 영업·리스크·준법·운영 부서와의 장기적 관계가 프로젝트의 속도·품질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는 면접에서 직접 질문받기는 드물지만, 입사 후 조직 적응의 실제 속도를 좌우하는 숨은 변수입니다.

[5장] 디지털금융-IT 직무 분석

5.1 직무 범위와 한화투자증권 조직 구조

증권사 IT 부서 업무는 ① 대고객 채널계(MTS/HTS/WTS/홈페이지/오픈API), ② 계정계(매매·체결·계좌·출납·예탁·수익증권·파생 원장), ③ 정보계·데이터 플랫폼(ODS/DW/빅데이터), ④ 리스크·FDS 시스템, ⑤ 클라우드·네트워크·보안 인프라, ⑥ AI/ML 모델 운영(RA·챗봇·이상거래탐지), ⑦ 마이데이터·오픈뱅킹, ⑧ STO/디지털자산·Web3 지갑 인프라의 8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 8개 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축의 변화가 다른 축에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직무별 세부 분업은 존재하지만 조직 전체적으로는 각 축이 상호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디지털혁신 부문**(STEPS-디지털콘텐츠·빅데이터·디지털개발 등 약 6개 하위 부문), **미래전략실**(STO·온체인·글로벌), **디지털자산리서치팀**, CISO 직속 **정보보호 담당**을 운영하며, 계정계·매매 시스템 상당 부분을 **코스콤(KOSCOM) 공동전산센터**에 위탁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구조**를 취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지원자가 담당할 업무가 "100% 자체 개발·운영"이 아니라 "코스콤 위탁 영역의 PM·관리·감독 업무 + 자체 구축 영역의 설계·개발·운영 업무"의 혼합 형태라는 점입니다. 즉 코드만 잘 짜는 개발자보다는, **외주 파트너와의 계약·요구사항 관리·변경통제 역량**을 겸비한 인력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지원자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코스콤 위탁 영역의 관리·감독, 자체 구축 영역의 설계·개발·운영, 신규 디지털 서비스(STO·AI·토스 제휴)의 개척** 3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5.2 일·월·연 단위 업무 사이클

일 단위로는 08:00 이전 전일 배치 결과·시세·주문 서버 상태 점검과 KRX·NXT 연결 헬스체크, 09:00~15:30(NXT 프리마켓 08:00~, 애프터 ~20:00) 실시간 모니터링·장애 대응, 마감 후 원장 정산·예탁결제원(KSD) 결제 연계·야간 배치가 이어집니다. NXT 도입으로 **실제 운영 커버리지는 12시간으로 확대**되어 운영팀의 교대·대기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사이클은 전통적인 09~18시 사무직 근무 리듬과는 현저히 다르며, 특히 시장 개장 직후·마감 직후의 1~2시간은 전 팀이 상시 대기 상태로 장애를 감시합니다. 야간 배치가 실패할 경우 다음 날 개장 전까지 복구해야 하므로 야간 온콜(on-call) 당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 단위로는 월마감·증권거래세·배당·이자 정산, 정기 보안 패치·DB 인덱스 재구성, 금감원·금융보안원 제출 보고가 수행됩니다. 이 중 월마감과 세금 정산은 단 한 번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 정확성 업무이며, 리스크·IB·WM 등 현업 부서의 월간 지표·성과 산정의 기반이 됩니다. 보안 패치는 취약점 공지(KISA·금보원) 이후 통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상 7~30일 이내 적용을 권고받으며, 긴급 취약점(제로데이)의 경우 72시간 이내 대응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연 단위로는 차세대 프로젝트(18~24개월), 감독기관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의무인 **재해복구(DR) 전환훈련**, 3년 주기 ISMS-P 인증 갱신(연 사후심사),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가 고정 이벤트입니다. DR 훈련은 실제 시스템을 주전산센터에서 재해복구센터로 스위칭하는 훈련으로, 성공 여부가 금감원 보고 사항입니다. ISMS-P 인증은 증권사 비즈니스 연속성의 법적 근거이며, 유지 실패 시 자본시장법상 인가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연간 이벤트들은 모두 IT 부문의 주요 KPI 일정과 직결되며, 지원자는 입사 후 이 연간 리듬을 빠르게 체화해야 합니다.

5.3 이해관계자 맵

내부는 리테일·WM·IB·트레이딩·리스크관리·준법감시인·CIO(디지털혁신 부문장)·CISO·감사·HR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IT 프로젝트의 요구자이자 사용자이며, 동시에 보안·규제 관점에서 감독자 역할도 합니다. 예컨대 준법감시인은 신규 서비스 출시 시 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적합성을 최종 승인하고, CISO는 보안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외부 감독·인프라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FSEC),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KSD), 넥스트 트레이드(NXT/ATS),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으며, **외부 벤더**는 코스콤(FICO 프레임워크 기반 원장·트레이딩 아웃소싱), LG CNS·삼성SDS·SK AX(구 SK C&C)·다우기술·INF컨설팅(STO 특화)이 주요 파트너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는 AWS·MS Azure·네이버클라우드(NCP) 3사로 멀티클라우드 구도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 맵이 시사하는 바는 디지털금융-IT 직무가 단순히 "사내 동료와만 일하는 직무"가 아니라 **규제당국·거래소·시장 인프라·다수 외부 벤더와의 접점에서 일하는 직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단일 기업 내부만 경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조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며, 설령 그런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 맵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우선순위를 조율할 수 있는 사고력"을 면접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5.4 필요 역량

기술 스택은 Java·Kotlin·Python을 기본으로 Spring/Spring Boot, RDBMS(Oracle·MySQL·PostgreSQL), NoSQL(Redis·MongoDB), Kafka·RabbitMQ, Kubernetes·Docker, CI/CD(Jenkins·GitLab·ArgoCD), IaC(Terraform), 관측(Prometheus·Grafana·ELK), 모바일(iOS·Android), Web3(이더리움·솔라나 SDK, 지갑 연동) 순으로 요구 범위가 넓습니다. 코스콤 FICO가 오픈소스 Java·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제공되면서 **C → Java, 모놀리식 → MSA 전환**이 업계 공통 흐름이며 한화투자증권도 이 트랙 위에 있습니다. 지원자가 모든 스택을 다 마스터할 필요는 없지만, **Java/Spring 기반 API 설계·개발, RDBMS 성능 튜닝,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CI/CD 파이프라인**은 입문자·주니어 레벨에서 반드시 기본기를 갖춰야 할 영역입니다. 추가로 데이터 엔지니어링·AI 모델 운영·Web3 등은 특정 영역 지원자에게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법·규제 지식은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전자증권법·토권증권 규율체계·ISMS-P 점검기준이 핵심입니다. 이 지식은 "법전을 외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법률이 IT 실무에서 어떤 설계 제약을 만들어내는지(예: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재해복구센터 이격 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가명처리·영향평가, ISMS-P 392개 항목 중 IT와 직접 관련된 항목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원자는 입사 전후로 관련 법령 원문과 공시·보도자료를 한 번씩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면접에서 큰 차별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소프트 스킬은 장애 상황의 침착한 의사결정, 현업-IT-보안-준법 간 번역자 역할, 기술 문서화·벤더 협상력입니다. 장애 상황에서는 조직이 공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원인 추정 → 우선 조치 → 책임자 보고 → 고객 공지" 순의 냉정한 플레이백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번역자 역할은 "현업의 비즈니스 언어를 IT의 시스템 언어로, 그리고 다시 규제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이는 기술 전문성 이상의 종합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5.5 KPI 체계

핵심 지표는 세 묶음입니다.

첫째는 **안정성·보안** 지표로, 시스템 가동률 99.9% 이상(SLA), 연간 중대장애 0건, MTTR(평균 복구 시간) 30분 이내, MTBF(평균 무장애 시간) 상향, 장애 재발율, 보안 취약점 Critical 0건, 침해사고 0건이 주요 항목입니다. 가동률 99.9%는 연간 허용 다운타임 약 8.76시간으로 환산되며, 이보다 한 단계 위인 99.99%는 52.6분, 99.999%는 5.26분으로 급격히 엄격해집니다. 증권사 핵심 시스템은 통상 99.99% 이상을 목표로 하며, 금감원·금보원이 이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둘째는 **프로젝트·품질** 지표로, 일정 준수율, 코드 리뷰 커버리지, 단위·통합 테스트 커버리지 80%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중형사는 프로젝트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범위 관리(Scope Management)·우선순위 조정 능력이 개별 PM의 성과를 좌우합니다. 테스트 커버리지 80%는 업계 일반 목표치이며, 실제로는 더 높은 수치(90% 이상)를 요구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 지표**(STEPS iOS/AOS 앱마켓 평점, MAU·DAU·디지털 계좌개설 비중, 비대면 거래 비중, 주문 체결 지연 ms, KRX/NXT 최선집행 비율)와 **디지털 전환 지표**(클라우드 전환율, 컨테이너화 비율, AI 모델 운영 건수, API 호출량, STO·RWA 플랫폼 발행건수)가 전사 KPI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객 지표는 사업 성과와 직접 연결되고, 디지털 전환 지표는 CEO 비전(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의 실행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됩니다. 지원자는 이 KPI 체계 중 본인의 역할·직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1~2개 지표를 미리 식별하고, 본인이 어떻게 그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5.6 대표 워크플로우 3가지

시나리오 ① STO/RWA 플랫폼 런칭 3개월 일정(인프라 담당자): M1에는 요건정의·아키텍처 설계(발행인 계좌 관리기관 연계, 분산원장 노드, KSD 전자증권 인터페이스), 망분리·암호화 설계서 검토, 금보원·금감원 사전협의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어떤 블록체인을 선택할 것인가(이더리움·하이퍼레저·코스모스 등)", "발행·유통·권리기록의 책임을 어떤 기관이 질 것인가", "기존 전자증권 체계와의 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3대 설계 결정입니다. M2에는 프라이빗 체인 구축, KYC/AML 모듈 통합, 원장 연계 API 개발, 모의해킹·취약점 점검, DR 이중화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 파트너(예: INF컨설팅 같은 STO 특화 SI)와의 협업 품질이 일정 준수의 최대 변수이며, 내부 보안팀·준법감시인과의 사전 협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M3에는 UAT, 혁신금융서비스 신고 대응, 오픈 리허설, 런칭 후 2주간 Hyper-care 운영으로 마무리합니다. Hyper-care 기간에는 전 담당자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초기 고객 문제·장애를 24시간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② MTS(STEPS) 대규모 장애 대응 타임라인: T+0분 APM·Prometheus 알람 → 장애선언, 사고대책반(War Room) 소집. 이 순간의 핵심은 "누가 선언 권한을 가지는가"와 "현업·CS 채널에 몇 분 내 알리는가"의 두 결정입니다. T+10분 원인 1차 분류(예: 채널계 WAS 커넥션 풀 고갈) 후 트래픽 우회·스케일아웃, 고객센터·준법감시 통보. 이때 긴급 조치(스케일아웃·서버 재시작·특정 서비스 차단)의 권한은 사전에 정의된 "긴급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사후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T+30분 서비스 정상화 및 전자금융사고 보고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24시간 이내) 준비.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중대한 전자금융사고는 24시간 이내 금감원·금보원 보고가 의무이며, 이 보고 자료의 정확성이 향후 조사·제재의 경중을 좌우합니다. T+1~7일 RCA(근본원인 분석)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민원·손해배상 검토, 보안·ITSM 티켓 클로징이 이어집니다. RCA는 단순 기술 원인을 넘어 "왜 그 원인이 사전에 발견되지 않았는가"의 프로세스 원인까지 짚어야 조직 학습으로 전환됩니다.

시나리오 ③ 차세대 원장 시스템(C → Java-MSA) 전환 18개월 프로젝트: 0~3개월 AS-IS 분석 및 TO-BE 아키텍처(MSA, 코스콤 FICO 기반) 설계, 4~9개월 서비스 단위 분해·데이터 이관 설계·클라우드 랜딩존 구축, 10~15개월 병행운영(Dual-run)·TPS 검증·장애주입 테스트, 16~18개월 주말 컷오버·금감원 사전보고·DR 훈련·레거시 폐기 순으로 전개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업계에서 "증권사 IT의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규모와 복잡도가 크며, 실패 시 6개월 이상의 일정 지연과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형사인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코스콤 공동 전산 기반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지만, 여전히 내부 커스터마이제이션·데이터 이관·현업 트레이닝은 자체 과제로 남습니다. 지원자가 차세대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강력한 차별화 요소이며, 없더라도 "이런 장기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7 경력 성장 경로

디지털금융-IT 직무의 경력 성장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기술 전문가(Technical Expert) 트랙**으로, 특정 영역(예: 매매 체결, 보안, 데이터 플랫폼, 블록체인)에서 깊은 전문성을 축적해 테크 리드·수석 엔지니어·CISO·CTO로 성장하는 경로입니다. 둘째는 **프로젝트·조직 관리자(PM/Manager) 트랙**으로, 여러 시스템을 포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현업·벤더·규제당국을 조율하며 부문장·실장·부문 임원으로 성장하는 경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중간 단계에서는 **CAP(Certified Architect in Capital Markets)·ISMS-P 심사원·클라우드 자격(AWS/Azure)·보안 자격(CISSP·CISA)** 같은 외부 인증이 커리어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채용 기준이 "근속·직급보다 프로젝트 완수 경험"을 우선한다고 명시된 만큼, 본인이 이 두 트랙 중 어느 쪽을 지향하는지를 초기에 설계하고 그에 맞는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장기 성장의 핵심입니다.

5.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디지털금융-IT 지원자는 "본인의 과거 프로젝트를 위 3개 시나리오 중 하나의 구조로 재서술"할 때 가장 높은 실감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부·전 직장에서의 결제·핀테크·MTS·보안 프로젝트를 "장애 대응 타임라인" 포맷으로, AI·빅데이터 프로젝트를 "STO/RWA 런칭 3개월" 포맷으로, 레거시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차세대 18개월" 포맷으로 재구성하고, **KPI(가동률·MTTR·MAU·취약점 수)** 숫자를 반드시 덧붙이는 것이 면접관의 직무 적합성 판단을 돕습니다.

추가로, 면접관이 "한화투자증권의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올 경우, 단순 찬성·반대를 넘어 "이 전략의 실행에서 디지털금융-IT가 책임져야 할 기술 과제 3가지"를 명료하게 꼽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답변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① STO 인프라의 확장성·보안(멀티체인·키관리·규제 대응), ② 글로벌 RWA 네트워크 연결(Securitize·동남아 현지 시스템 통합), ③ 보유 디지털자산 데이터의 유통·활용(두나무 연계·마이데이터 연동) 같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 | | | | | |
|------------|--------|------|----|---|
| 1. 자본시장연구원 | '2026년 | 증권산업 | 주요 | 이 |
|------------|--------|------|----|---|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 슈」 —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cno=6714
2. 자본시장연구원 「STO 현황 및 시사점」 —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cno=6058
3. 딜로이트 「2025 금융산업 전망(한국)」 —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financial-services/2025/kr_2025fsi_part1.pdf
4. 삼일PwC 「조각투자·STO 이슈브리프」 —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samilpwc_understanding-fractional-investment-and-sto.pdf
5. 삼일PwC 「생성형 AI 금융 활용 사례」 — https://www.pwc.com/kr/ko/insights/samil-insight/samilpwc_ai-business-use-cases.pdf
6. 삼성SDS 「2025 은행 AI 활용 전망」 —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ai-in-banking-in-2025.html>
7. 삼성SDS 「STO(Security Token Offering) 인사이트」 —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what-is-a-security-token-offering.html>
8. 한국기업평가 「2025.3Q 증권사 자기자본 현황」 — <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R8&gubun=2&fileName=rs20250926-26.pdf>
9. 금융위원회 「망분리 개선 로드맵(2024.8)」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82885>
10. 금융위원회 「SaaS 망분리 규제완화(2025.1)」 — <https://www.fsc.go.kr/no010101/86080>
11.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시행(2025.6)」 — <https://www.fsc.go.kr/no010107/84785>
12. 금융보안원 「금융권 ISMS-P 인증자료」 — <https://www.fsec.or.kr/bbs/detail?menuNo=247&bbsNo=6359>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감독규정」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chrClsCd=010201&admRulSeq=2000000064853>
14. 넥스트레이드(NXT)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extrade.co.kr/>
15. 유진투자증권 「넥스트레이드 출범 리포트」 — <https://files-scs.pstatic.net/2025/03/03/CBWkbEyXfy/>
16. 한국경제 「한국투자증권 영업이익 2조 클럽 최초 진입」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7007>
17. 대한금융신문 「2025.3Q 증권사 자기자본 현황」 —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20>

심층 분석 보고서: 한화투자증권-디지털금융-IT

18. 대한금융신문 「2025 상반기 자기자본 현황」 —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38>
19. 디지털데일리 「코스콤 C to Java 전환」 — <https://m.ddaily.co.kr/page/view/2024062611091720819>
20. 파이낸셜뉴스 「증권사 원장관리 클라우드 전환」 — <https://www.fnnews.com/news/202308301821523940>
21. 인베스트조선 「STO 증권사 컨소시엄 동향」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9/26/2025092680112.html
22. 헤럴드경제 「한화투자증권,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비전 선포」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41280>
23. 이투데이 「한화투자증권 어닝서프라이즈·두나무 지분 계속 보유」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9785>
24. 뉴시스 「한화투자증권 3분기 영업이익 376억원」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3_0003402182
25. 아시아투데이 「장병호 신임 대표 내정」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11010006840>
26. 머니S 「장병호 신임 대표이사 선임 (2025.9.1)」 —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90116585119510>
27. 녹색경제신문 「한화투자증권 이익 3600% 폭증에도 배당 0원」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7932>
28. 한화투자증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 — https://www.hanwha.co.kr/assets/data/philosophy/Hanwha_Investment_Securities_Sustainability_Report_2025.pdf
29. 한화투자증권 공식 보도(Ciptadana 인수) — https://www.hanwhawm.com/main/bbs/indexView.cmd?vc_bid=hanwha1&nn_id=47686&dt_regdate=2023/06/19
30. 한화인 채용 포털(핵심가치·Great Challenger) — https://www.hanwhain.com/web/hanwha/main_value/main_value.do
31. 2026 한화투자증권 디지털/글로벌 경력채용 포털 — <https://recruit-hanwhawm.com/>
32. 한화투자증권 STEPS 공식 사이트 — <https://steps.plus/>